본회 김수근회장, 김영진 농림부 장관면담

- 양록농가 소득 안정 및 발전 등 대책 마련 촉구 -

본회 김수근 회장은 6월 4일(수) 김영진 농림부장관을 집무실에서 만나 절편녹용 수입허용에 따른 대응방안 등 양록산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.

이 자리에서 김수근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내년도 4월부터 절편녹용의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, 낙농가와 맞먹는 국내 1만2천 양록농가의 소득안정과 양록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녹용 수매자금 및 녹용가공장 설립 등을 지원하여줄 것을 요청했다.

이에 金장관은 생산자단체도 관련품목 발전방안에 대해 가능하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정부도 이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, 양록협회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해당부서에 지시했다.

(좌로부터 이상래씨, 김수근 회장, 김영진 장관, 성 락 사무총장, 최형규 축산정책과장)

□ 건의요지

- 양록, 과거 부유층 전유물이었으나 지금은 1만5천여 농민의 생업수단임
- 주 생산물은 녹용, 전통 한약재로서 세계 소비량의 80%가 국내에서 소비
- 사슴, 생리적 특성상 산야초, 나뭇잎 선호 사료자급 가능 가축임
- 분뇨량 극히 적어 환경오염 우려 낮음
- 수요증가에 따라 미래 농촌을 책임질 주요 고소득 축산으로 평가받고 있음
- 양록농가, 절편녹용 수입 반대입장
- 국가간 통상문제 수입저지 불가능인식
- 스스로 경쟁력 제고 노력을 통해 당당히 경쟁하겠다는 자세 가다듬고 있음
- 대신, 정부차원 특별 지원대책 요청
- '국산녹용 안정 판매기반 조성사업' 추진, 축발기금에서 3년간 1백억원 지원 희망
- 양록산업 가능성 재평가, 반드시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망 한국양록